

윤선민
인류학과 석사과정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으로 2-3개월 동안 베트남 호찌민에서 현지 조사를 다녀왔다. 베트남 중고등학생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석사 학위 논문 작성에 앞서 민족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녀왔다. 최근 베트남은 공교육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안팎에서의 일상생활과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정체성과 공립학교의 애국주의 교육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전지구화 시대 속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고 한다. 교육 개혁에 있어 국가의 ‘국제 통합’에 필요한 ‘애국주의적 인재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식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과 외국어 교육,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약 1개월간의 참여관찰과 함께 학생들의 일과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고 약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1 - 조사 학교 운동장, 그림 2 - 교내 행사

공교육 개혁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다시금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 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를 포함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실천을 수행하면서 일상을 보낸다. 또한, 호찌민이라는 남부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상 가정에서 재생산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공적 영역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은 베트남 경제사회적 발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베트남 사회의 한계로부터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는다. 이러한 학생들의 일상과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정체성과 진로가 전지구화에 따른 경제 발전 속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과 몸담은 호찌민시, 명문학교인 모교에 대한 소속감이 결합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호찌민시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위해 호찌민시에서 민족지적 방법론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을 살펴보아야한다는 점에서 직접 현장에서 당시의 사건에 참여하며 관찰하는 것과 연구 대상과 쌓은 라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심층면담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은 논문 작성에 앞서 긴 현지조사 기간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